

2017년 2월 키르기즈의 친구들

1. 신약 주석 번역 작업

지난 한 해 동안 감수 작업과 편집 작업이 진행되던 누가복음과 초기기독교서신 주석서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이제 13권 중에 복음서 4권과 서신서 첫 권이 출간되어 모두 5권의 주석이 출간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번역 작업 팀의 로빈 교수님은 건강 문제로 다시 지난 12월에 본국인 호주로 잠시 떠났습니다. 고관절 부근의 통증으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게 되어 검사와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현재 물리치료와 함께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3월 말경에 다시 키르기즈로 돌아올 계획인데, 그때까지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은 연합신학교 이름으로 출간되고 있고, 도서 보관도 연합신학교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신학교 창고에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섬기는 새언약교회의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을 부탁해서 우선적으로는 공간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번역자를 발굴해서 지금 번역 용어와 번역원리 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 팀에 합류한 현지 번역자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현지 교회(새언약 교회)

이곳 키르기즈스탄은 겨울이 한국보다 기온이 낮고 눈이 많아서 난방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기나 가스로 보일러를 가동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해서 석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은 창가에 군데군데 설치된 라디에이터가 일반적인데, 지난 12월에 한국식으로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 깔고 시멘트 마감했습니다. 교회 젊은 리더들이 함께 시간을 내어, 수고와 땀으로 시공작업을 하였습니다. 시멘트 마감 위에 별도의 마루판이나 장판을 깔려고 했는데,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시멘트 마감을 마무리해서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 공사를 하면서 낡은 싱크대와 책장 등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판넬 재료만 구입하면 제작은 제가 도와주기로 해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필요한 가구를 제작하면서, 제가 가구 설계와 조립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했더니 젊은 친구들이 아주 관심이 많아 조만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 두명 관심있는 현지인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제게도 이제 가르쳐 줄만한 충분한 기술이 습득이 되어 가르치는 제게도 기대가 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집에 사용할 가구를 해결하는 수준이 되겠지만, 손재주가 있는 친구에게는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매들도 모임을 만들어 여러 가지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아내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매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전도사 벡뚜르, 디아나 부부는 그동안 자녀 셋(5살, 2살된 쌍둥이)이 있는데, 벡뚜르 전도사는 지난해 9월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새롭게 직장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사역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벡뚜르 전도사의 가족에게 교회에서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있는 만큼의 재정상황이 아니지만, 벡뚜르 전도사는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동안의 심리적,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목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사모인 디아나는 신학교에 출강을 하면서, NGO 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수입이 적기는 하지만 신학교 강의를 늘리고 NGO 단체에서의 일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어서 신학교에서도 아주 귀한 자원입니다. 이 부부의 섬김과 목회에 지속적인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드림아카데미

드림아카데미의 한국어교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C)이 있는 4월까지 강의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지난 가을에 새롭게 시작한 현지인 선생님(굴라)은 남편이 한국 마산에 있는 조선소에 취업이 되어(예전에도 수년동안 일했던 경력이 있음 / 한국어를 잘해서 러시아, 키르기즈 노동자들의 통역으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굴라 선생님 자신도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강의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 4월까지 수업을 나누어 운영하고, 가을학기에 교사 충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현지인 중에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을부터 강의를 맡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어교실은 협력하고 있는 한국인 사역자들이 정해진 강의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지 선생님들의 이동이 많아서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는 것이 늘 숙제입니다. 저희 한국어교실의 시간과 상황에 적절한 현지인 선생님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족 스케치

아내는 이곳에 있는 몇몇 관심자들과 자녀교육과 상담관련 작은 모임과 교회에서 종이접기반을 통해 현지인들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조용하지만 의미있고 영향력 있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은이는 2학년을 그리고, 지아는 1학년을 마쳤습니다. 지아는 이곳 현지 대학에서 1년을 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의 첫해를 보내느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비교되고 학업보다는 한국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든적도 있었지만 잘 마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지은이는 자취하는 4학년 선배와 함께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초등학생들을 위한 멘토링캠프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3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학년 새학기를 잘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헤브론정, 엘레나김 드림